

## 2 종합

# 경희톡 중단 제작 회사 사정 때문

김륜희 기자 poetry\_5989@kh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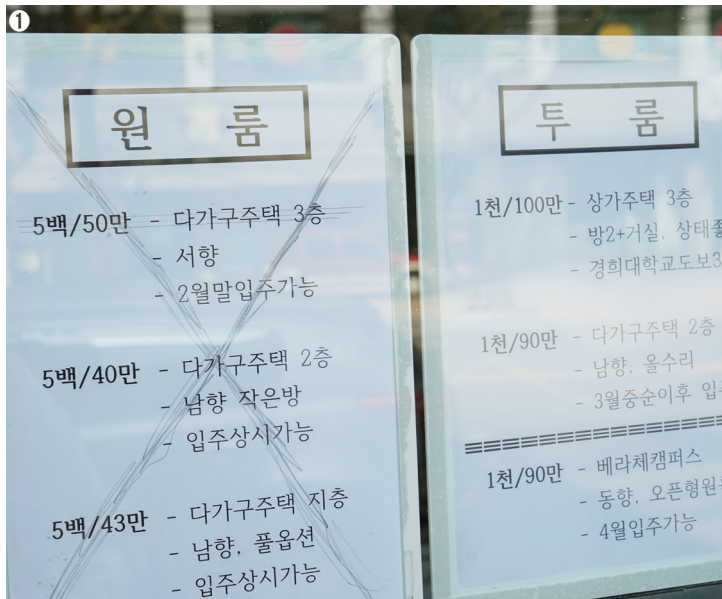
경희톡 서비스가 중단됐다. 경희톡은 2019년 2학기부터 도입된 앱 서비스로 수강데이터가 연동되며 그룹이 자동 생성돼 ▲학생-교수 간 소통 및 정보공유 ▲사용자 그룹 내 정보 소식 공유 ▲대학 알림 정보 수신 등의 기능을 했다. 대체 수단은 통합 앱이 될 전망이다.

정보처는 제작사 기술지원 중단 및 서비스 계약 종료, 해결 불가한 메시지 전송 오류를 중단 사유로 들었다. 정보처 최정인 차장은 “최근 몇 년간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이 귀해지고, 제조사 내부 문제로 개발자, 인력이 모두 퇴사했다”며 “결국 2023년 12월 31일 계약만기와 함께 기술지원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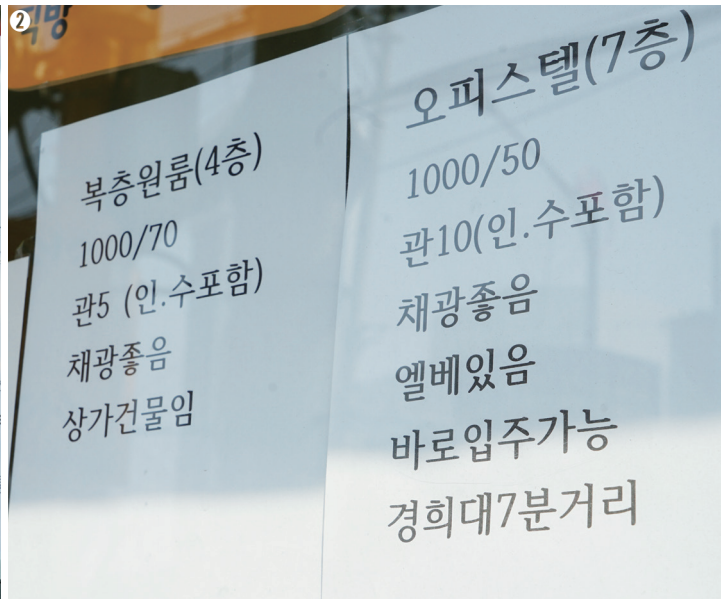
경희톡 운영 종료에 임형진(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수업할 때 경희톡을 자주 사용한 편이라 아쉽다”며 “앞으로는 개편된 E-campus 알림을 통해 소통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양수미(미디어학 2020) 씨는 “수업을 한 번 빠졌을 때 연락처가 없는 같은 반 수강생에게 경희톡으로 정보를 물어볼 수 있었다”며 “다른 방법에 비해 유용하다고 생각했는데 사라지게 돼서 아쉽다”고 전했다.

다만 경희톡의 아쉬운 점들 또한 지적돼왔기에 새로운 플랫폼 구축 시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근(소프트웨어융합학) 교수는 “경희톡보다 소통에 특화된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향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장우성(철학 2019) 씨는 “중요하지 않은 공지와 똑같은 공지가 7번 오는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의 보완이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대체 수단으로는 통합 앱이 예상된다. 통합 앱은 현재 스마트캠퍼스 구축사업단에서 진행 중인 사업으로 PUSH 알림을 비롯해 모바일 학생증 등 다른 편의 기능도 포함될 예정이다. 정보처 최 차장은 “경희톡 오류 및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구성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스마트캠퍼스 구축사업단과의 협력 등을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1년 사이 학교 인근 원룸 평균 월세는 56만 5000원에서 62만 원으로 9.7% 상승해 학생의 주거난이 심화되고 있다.



(사진1, 2-임주양 기자, 사진3, 4-대학주보 DB)

## 회기서 ‘싸고 좋은 집’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

임주양 기자 0816wndid@khu.ac.kr

【서울】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90만 원. 양수미(미디어학 2020) 씨가 들어간 회기역 인근 오피스텔이다. 코로나19 이후 넘치는 수요와 금리 상승, 전세 사기로 인한 전세 기피 등으로 학교 인근 주거지 월세 상승은 학생들이 실감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 운영업체 스테이션3에 따르면 1년 사이 회기동, 이문동, 휘경동, 청량리동의 원룸 평균 월세가 56만 5000원에서 62만 원으로 9.7% 상승했다. 직방, 다방과 같은 부동산 정보 플랫폼을 조사해 본 결과 50만 원대 신축 건물 월세는 찾기 어려웠다. 월세가 60만 원 이하일 경우 매물 대부분 보증금이 2,000만 원을 넘어 3,000만 원에 달하기도 했다. 평균 관리비 역시 8.5% 뛰어 7만 원으로 상승했다.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입을 모아

코로나19 이후 월세가 많이 상승했다고 말한다. 서울캠 인근 ‘미소 공인중개소’를 운영 중인 김미광 씨는 “코로나19 때는 매물이 많아 집주인들이 월세를 매개는 20만 원까지 내리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 월세가 많이 오른 상태”라고 말했다.

수 공인중개소 최우 씨는 “월세가 예전보다 평균 20만 원 정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신축 건물은 보증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며 월세 70만 원에, 오래된 건물은 50~60만 원으로 가격대가 형성돼 있다. 오피스텔은 보증금 3,000~5,000만 원, 월세 60~70만 원이 평균이다.

인근 원룸 월세는 작년부터 눈에 띄게 상승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며 대부분 수업이 대면으로 전환되며 원룸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스타부동산을 운영 중인 최순호 씨는 “비대면 강의 때 지방에 머물던 학생이 거의 다 서울로 올라

오면서 작년부터 방을 구하려는 손님이 많았다”며 “신입생과 기존 재학생이 모두 방을 구하다 보니 월세가 오른 것도 있다”고 밝혔다.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금리 상승 또한 월세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건물 소유주가 신축 건물을 지을 때 빌린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이자율이 오르며 집값도 상승한 것이다. 2024년 2월 기준 한국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3.5%다. 기준금리가 0.5%였던 2021년 7월 이후 8월부터 점차 상승해 2023년 1월 3.5%까지 올랐고, 지금까지 동결된 상태다.

수 공인중개소 공인중개사 최우 씨는 “건물주들이 대출금을 보통 몇억 정도 빌리니까 예전에는 이자가 2~300만 원 정도였다면 지금은 4~500만 원은 내야 한다”며 “그 이자의 7~80%를 임차인인 학생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 김 씨 역시 “기준금리가 인상돼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

부담으로 인한 월세 수요 증가도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을 월세 상승의 원인으로 들었다.

월세 인상에는 재작년부터 전국을 강타한 전세 사기도 한몫한다. 사람들이 전세를 기피하며 월세 수요가 증가한 것이다. 김 씨는 “전세 사기로 인해 전세 수요가 월세로 몰렸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통학 거리, 안전 등을 이유로 기숙사 입사 혹은 자취방거주를 선택한다. 몇 가지 이유로 기숙사 입사에 실패한 학생들은 학교 인근 부동산을 수소문한다. 하지만 부담스러운 가격이 학생들을 맞힌다. 정현주(행정학 2022) 씨는 “작년에 기숙사 입사 탈락 이후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을 때는 반지하나 상태가 좋지 않은 집만 남아있어 제기동역 근처에 집을 구했다”며 “회기를 벗어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90만 원의 회기역 인근 오피스텔을 구한 양수미(미디어학 2020) 씨 또한 “보증금과 월세 모두 1, 2년 전에 비해 많이 올랐는데 구하는 사람에 비해 매물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현 상황에 아쉬움을 드러냈다.